

민주노총 '국민건강권쟁취 총파업 돌입'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7.02 11:39

총 13만6천여 명 조합원 파업 돌입, 수도권 3만, 전국 10만 조합원들 국민촛불행진 동참예정...7월2일 총파업, 7월 한 달 파업 포함한 총력투쟁...2일 '공안탄압! 미친소 수입강행! 국민주권 팔아먹은 이명박정권'

민주노총이 이명박 독재정권 대국민 전쟁선포에 맞서 국민 생명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오늘(7월2일) 총파업, 7월4~5일 1박2일 집중상경투쟁, 7월5일 100만 촛불항쟁 성사 등을 시작으로 7월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달로 선포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국민생명권을 팔아먹은 굴욕적 대미 조공외교와 독재정권식 무자비한 폭력탄압으로 국민주권을 말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전면적 심판투쟁으로 전개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계급 모든 투쟁을 국민촛불에 복무시킴으로써 국민 절절한 요구인 광우병 쇠고기 고시철회와 전면재협상을 쟁취하고 촛불 힘으로 국민생명권을 사수해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국민들 확고한 불매결의를 이끌어낸 운송저지투쟁에 이어 전조직적 광우병쇠고기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조직될 국민감시단과 함께 광우병 미국 쇠고기 운송과 유통, 소비자판매 과정을 정확히 파악해 단 한 점 광우병쇠고기도 시민들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100% 불매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수구보수언론 민주노총 고립화 음모와 대대적 공안탄압을 전면투쟁으로 분쇄하고, '80만 조합원 조중동 끝장내기' 투쟁으로 독재정권 나팔수 수구보수언론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낼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19일 제4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7월2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7월 한 달 모든 가맹산하조직 총력동원해 총파업 및 총력투쟁 전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6~7월 투쟁계획'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미친 소 수입강행! 국민주권 팔아먹은 이명박정권 심판 및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2일 오후 6시 서울 시청 앞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갖고, 각 지역에서도 전국 동시다발로 이뤄진다. 15만 금속노동자와 건설노조, 화학섬유연맹 소속 사업장 파업을 중심으로 16개 산별연맹들이 총회투쟁을 통해 조합원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이어 노동자들 손에 촛불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일에는 16개 지역본부가 전국 동시다발로 각 지역 촛불거점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4~5일에는 10만 명 규모 1박2일 집중상경투쟁을 전개해 집회를 갖고 촛불을 들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중앙 상경투쟁이나 지역집중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가짐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기필코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국민 지지격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명박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와 동시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자 민주노총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국민 성원과 지지가 쏟아졌다.

이번 7월2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선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폭발적인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지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라를 위해 당신들의 촛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민노총사랑)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의 결단을 지지합니다. 7월2일부터 5일까지 촛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줍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배후에는 제가 있습니다"(신00)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이 정부와 조중동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 결정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풍운아)

“현대, 기아자동차에 전화해서 민주노총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중동에 광고 낸 많은 기업들에 항의전화하면서 조중동 불매운동 하신 민주노총의 파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꼭 승리하세요”(안진엄마)

국민촛불에 학계·종교계·사회원로·시민사회단체들이 합류했고 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포함한 7월 한 달 총력투쟁으로 촛불을 수호하고 나섰다. 온 국민이 이명박 정권과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다.

[표시작]<민주노총 7월2일 총파업 돌입 상황></p></div>

민주노총은 지난 6월27일 총파업 선언에 이어 순차적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7월2일) 집중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일부 전면파업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있으며 2일 파업은 오후(3시~5시) 부분파업에 들어가는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주노총 가입 산별연맹 가운데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건설노조가 2일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체 13만6천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파업 진행 후 수도권은 3만여 명, 전국적으로는 10만 여명 조합원들이 국민과 더불어 촛불행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산별연맹별 파업현황</p></div>

○ 금속노조</p></div>

오후 3시~5시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하며 현대자동차 4만5천 명, 기아자동차 3만 명을 비롯해 GM대우자동차는 확대간부(임원 및 간부, 대의원, 소의원 등) 파업에 들어가며, 쌍용차를 포함한 240여 개 사업장 약 12만 여명이 파업에 참가한다.

○ 화학섬유연맹</p></div>

연맹 소속 총 1천여 명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며 센큐리트, LG생명과학, 페이퍼코리아, 성림유화 확대간부 5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한다. 동양실리콘, 한솔홈데코, BOC가스코리아 등 5백여 조합원들은 전면 파업을 실시한다.

○ 건설노조</p></div>

현재 건설노조 1만5천여 조합원들이 수백여 개 건설현장에서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표끝]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p></div>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